

제7차 유라시아 화학 학술회의

개발도상국 화학도들에 꿈심어

● 일 자 : 2002년 3월 8일~12일 ● 장 소 : 파키스탄, 카라치

신학기가 갖 시작된 지난 3월 8일, 필자는 인류 문명지의 하나인 모헨조다로 인더스문명 발생지인 파키스탄으로 출발하였다. 이는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진 학술여행이었다.

원래 2001년 11월 10일~13일로 예정되었던 학회가 9.11 미국 세계무역센터 테러로 인해 무기한 연기되었다가 위의 일정으로 재 조정되었던 것이었는데 학회를 앞두고 월스트리트 저널 지 소속 대니얼 필기자가 파키스탄 카라치에서 처형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등 외부에서 느끼는 파키스탄 내의 시국이 어수선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영문 약칭 EuAsC&S로 표기되는 상기 학회 국제조직위원회 간사직을 필자가 맡고 있다는 이유 외에도 기조강연(plenary lecture) 연사로서의 의무감, 그리고 아라비아해에 접한 항구도시이자 대만, 홍콩 등과 함께 북회귀선 근처에 위치한 남국의 도시 카라치에 대한 호기심이 본 필자로 하여금 새벽에 계룡산 집을 나서서 홍콩, 방콕을 거쳐 늦은 밤에야 카라치에 도착하는 힘든 비행일정을 감수케 했으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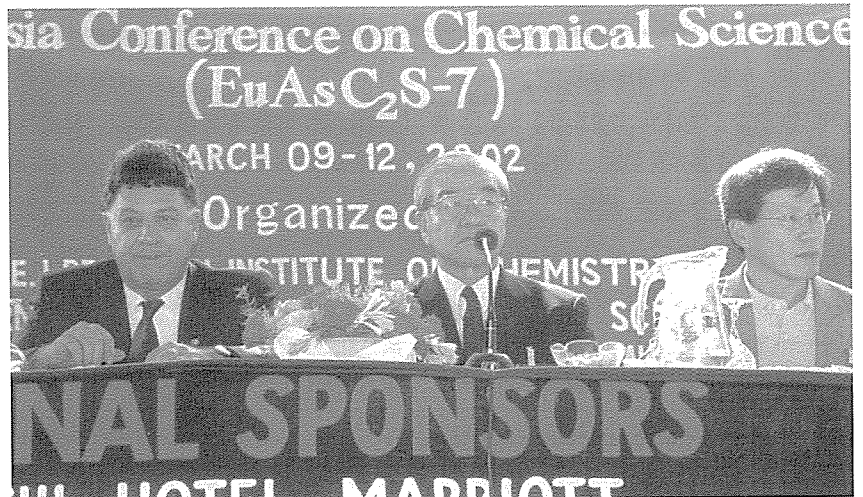
저명한 세계 화학자들 자비 참가
제7차 유라시아 화학 학술회의에 대

해 언급하기 전에 매 2년마다 개최되는 본 학술회의의 성격을 먼저 기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는 본 학회의 목표가 수많은 다른 국제 학술회의의 그것과 비교할 때 뚜렷하게 대별되기 때문이다.

1985~86년경 오스트리아의 번트 로데교수, 이탈리아의 이바노 버티니교수, 일본의 히토시 오타끼교수가 주축이 되어 조직된 유라시아 화학 학술회의는 유럽-아시아 두대륙 내의 화학자들간의 학술, 친목 교류를 증진시키는 점 외에 학회를 항상 대륙 내 개발도상국에서 개최하되 세계적으로 저명한 화학자들이 자비로 참석하도록 유도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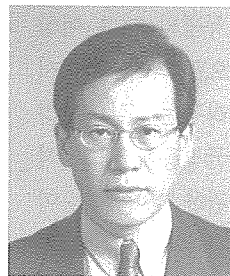
여 개최국의 화학자 특히 예비 화학자들에게 화학의 최첨단 연구동향을 소개함으로써 개도국 화학도들의 꿈을 북돋워주는 데에 핵심 취지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비 과학도들이 적극적으로 국제학술활동에 참여하게 된 것이 교육부가 주도한 21세기 지식기반사회 대비 고등인력 양성사업인 두뇌한국 BK21 사업시행 시점인 2000년도 이후이었음을 감안하면 본 학술회의가 추구하는 목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본 학술회의가 1988년 태국 방콕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이래, 1990년 한국 서울, 1992년



3월 12일 학회 폐회식에서 - 오른쪽부터 필자, 본 학회 국제조직위원장 오타끼교수, 국제조직위원 로데교수

유라시아 화학 학술회의는 매2년마다 개도국에서만 개최되는 학술회의로 이번 7차 회의는 2001년 11월에 개최 예정이었으나 9.11테러사건으로 연기되어 지난 3월8일부터 5일간 파키스탄 카라치에서 37개국에서 5백여명의 과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학회 국제조직위원회 간사직을 맡고 있는 필자는 기조강연연사로 한국과학기술원 강성호교수와 함께 이번 학술회의에 참석했다.



都 暎 圭
(한국과학기술원
화학파 교수)

태국 방콕, 1994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1996년 중국 광저우, 1999년 부르나이 다루살람에서 학술회의가 개최되었고 다음의 제8차 학술회의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태양을 따라 서쪽으로 날아가던 제트기조차 해를 대륙 저편으로 놓치고 지쳐할 무렵 카라치는 어둠으로 전신을 가리고 나타났다.

인터넷에서 검색해 얻은 파키스탄에 대한 정보는 카라치 공항에 밤에 도착할 경우엔 매우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었는데 딱히 무엇을 조심하며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안내 정보는 없었다. 동행한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과 유기화학자인 강성호교수와 함께 입국 심사와 세관 검색을 마치고 환전을 조금하여 공항 출구를 나서니 너무나 안심되게도 파키스탄 조직위원들이 영접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들로부터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당시 파키스탄 정부로부터 학술회의 참여 외국 과학자의 신변 안전을 위해 각별한 신경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었다고 한다.

실제로 입국부터 출국하는 순간까지 조직위원들의 세심한 배려와 에스코트가 있었고 참가자 모두 무사히 학술회의를 즐길 수 있었다.

한국 2명 등 37개국서 5백여명 참석

학술회의의 첫날을 필자는 이렇게 보냈지만 실상 학술회의 개막식은 파키스탄 대통령인 페르베즈 무샤라프장군이 참석한 가운데 첫날 오후 거행되었던 것이다. 이는 당초 파키스탄 국내 조직위원장으로 선임된 카라치대학교의 아타우르 라만교수가 본 학회를 준비하는 기간에 파키스탄 과기부장관이 된 사실과 무관하지는 않으리라 생각된다. 이렇게 시작된 학회엔 4백60명의 파키스탄 화학자 외에 36개국에서 94명의 외국 화학자들이 참가하여 11편의 기조강연, 48편의 초청강연, 39편의 세션강연, 1백67편의 포스터를 발표하고 토론에 참가하였다. 한국에선 2명, 일본에선 8명의 화학자가 참석하였는데 통상적으로 10여명의 한국 화학자, 50여명의 일본 화학자가 참석했던 역대 대회의 상황과 비교할 때 국제정세의 불안정이 제7차 대회에 미친 영향을 가늠케 해준다.

유라시아 화학 학술회의라는 학회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7차 학회에서도 화학 전반에 걸친 주제가 발표되었는데 특히 천연물 및 의약화학, 환경화학, 분석화학, 공업화학, 화학교육, 유기합성, 생무기화학, 배위화학, 용액화학의 10개 분야가 강조되었다.

기조강연의 주제로서는 깨끗한 환경을 염두에 둔 유기합성, 유전공학 기법을 이용한 생유기합성, 천연물로부터 신약을 개발하려는 연구결과, 새로운 분자소재의 개발, 금속함유 단백질의 구조연구, 양자 및 계산화학의 응용 등이 소개되었다. 기조강연을 제외한 모든 강연은 동시에 진행된 4개의 병렬 세션에서 발표되었다. 학회 진행은 비교적 매끄럽게 진행되었고 매 강연장마다 참가자들의 참여 열의는 높았다. 특히 3월 10일 일요일 오후에 있었던 포스터 발표는 파키스탄 대학원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매우 인상적인 것으로 기억된다. 여학생이 수적으로 남학생보다 압도적으로 많음에도 놀랐지만 그들의 적극적인 발표 태도도 이슬람 세계의 무슬림 여성이 매우 보수적일 거라는 필자의 선입견과 크게 대비되었기 때문이었다. 필자의 이러한 선입견은 '히잡'이라고 불리는 베일 같은 천으로 온 몸은 물론 얼굴까지 가린 아프카니스탄 무슬림 여성의 모습을 9.11 테러 이후 마스크를 통해 보았던 데에서 비롯된 것인데 학회에 참석한 파키스탄 여학생들의 대부분이 얼굴은 가리지 않고 사회생활에 임하고 있었다. 예로, 포스터 번호 68번의 논문은 사르와트 만수르가 그

녀의 공동연구자인 두명의 다른 여성 연구자와 발표한 것으로 파키스탄에서 칫솔나무라고도 불리우는 '살바도라 페르시카' 나무의 항균작용에 대한 석사학위 연구결과에 관한 것이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연구결과를 자랑스럽게 발표함은 물론 한국의 박사과정에 대하여 많은 질문을 한 후 사진 촬영도 요구하는 등 보수적 사회규범 테두리 안에서 썩고 있는 진보적 성향에 대한 그들의 갈망을 보여주었다.

그 외에 본 학회만이 제공한 특이한 점들을 열거해 보자. 필자가 지금까지 참석한 그 어느 학회와는 달리 본 학회에선 학회 전 기간에 걸쳐 점심과 저녁식사가 여러 후원회사 및 기관의 지원으로 무료로 제공된 점인데 다양한 파키스탄 음식을 시식할 수 있도록 메뉴가 세심하게 배려되었다. 파키스탄 음식은 주로 닭, 양, 새우 그리고 각종 야채를 카레나 이와 유사한 매운 양념을 사용하여 요리한 것인데 아마도 여행 안내서에 언급된 웬만한 파키스탄식 음식을 골고루 맛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것도 무료! 중전의 유라시아 화학 학술회의와 다른 점 또 하나는 학회기간 중간에 통상적으로 계획되던 만나절에 걸친 문화관광이 본 학회에선 제외된 점이다. 아마도 불안정 했던 당시의 국제정세 때문이리라. 그래도 3월 12일 마지막 날 학회 일정이 끝난 오후 외국인 참가자를 대상으로 쇼핑 점 카라치 시내 관광이 준비되었는데 외국인 참가자 7명으로 구성된 그룹당 3명의 카라치대학교 대학원 학생들이 안내자가 되어 주었다. 원색의 장식물을 주렁주렁 달고 매년

을 뺏으며 무질서하게 달리는 차량, 피뢰죄하고 험령한 단색의 옷차림 일색인 카라치 거리의 수 많은 인파, 먼지가 켜켜이 쌓인 건물, 죽은 쥐가 오물에 뒤섞여 여기 저기 널려있는 거리, 이처럼 파키스탄 도착 첫날 어둠으로 전신을 가리고 필자에게 나타났던 카라치는 남국의 항구도시에 대한 필자의 동경을 깨트리며 현실로 다가섰던 것이다.

파키스탄 화학계에 올바른 인식 전환 계기

파키스탄은 국부의 대부분을 3~5%의 상류층과 5~7%의 중산층이 차지하고 있고 90%의 국민들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계 자체가 삶의 목적인 듯 산다고 들었다. 문맹률이 70~80%이고 초등학교 6년을 제대로 마치는 비율이 10% 안팎이라는 수치가 뜻하는 바는 어린이들이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쥐꼬리만한 돈이라도 벌어야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이란다. 추측컨대, 중산층 이상 가정의 자녀가 아니면 대학 및 대학원 공부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다. 지금까지 필자는 파키스탄과 인도의 화학도들로부터 박사 후 연구 과정에 대해 많은 요청을 받았고 그때마다 그들이 쌓아온 연구 배경 및 수준이 필자의 그것과 매우 다르고 나아가 그들의 가정환경을 적절하게 가늠할 잣대가 없다는 이유로 그들의 요청을 부정적으로 대처해 왔다. 그러나 본 학회는 필자에게 파키스탄 화학계와 화학자에 대해 비교적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해준 학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학회에서 필자는 많은 수의 학생들

과 얘기를 나누었는데 이들은 중산층 이상 가정의 자녀로서 가치관이나 책임감이 옹골 형성되었다고 보여졌다. 이들의 대부분은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였다. 이들은 파키스탄 화학계를 흥미하는 천연물 화학 이외의 화학을 공부하는 것에 대해 매우 강한 의욕을 보였으나 파키스탄 내에서는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였다. 그 이유를 필자는 3월 10일 포스터 발표 이후 방문하게 된 에이취.이.제이. 화학연구소를 돌아 보고 찾게 되었다. 설립자 이름의 첫 글자를 따 카라치대학교에 설립된 상기 연구소는 현 파키스탄 과기부장관이자 본 학회 국내 조직위원장인 아타우르 라만교수가 소장으로 오랜 기간 재임하였던 곳으로 천연물 화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온 연구소다. 카라치대학교에 화학과가 따로 있는데 연구비는 물론 시설도 매우 빈약한 반면 상기연구소엔 고자장 핵자기 공명기기만 무려 8대나 있을 만큼 연구비의 편중된 투자가 있었던 모양이었다. 그 결과 천연물 화학분야에서 국제적 우위를 얻은 대신 화학의 다른 분야는 파키스탄에서는 설 땅을 잃은 것이었다.

이제 제7차 유라시아 화학 학술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파키스탄이 학회를 항상 유라시아대륙 내 개발도상국에서 개최하여 개최국의 화학자 특히 예비 화학자들에게 화학의 다양한 최첨단 연구동향을 소개함으로써 개도국 화학도들의 꿈을 북돋워주는 본 학회의 핵심 취지를 받아들여 자국 예비 화학자들을 화학의 무궁무진한 세계로 이끌어 주기를 기대해 본다. 57